

# 전남대병원 급성심근경색증 연구 논문 400편 성과

### 한국인 체질에 맞는 의료방법 연구 환자 사망률 11.4% → 6.7% 감소



됨으로써 총 400편 (SCI 367편)의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총괄연구책임자인 정명호 교수(사진)는 “KAMIR 연구를 통해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1년 사망률을 11.4%에서 6.7%로 감소시켰으며, 우리나라 환자의 체질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연구 성과는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 회원들의 지난 18년간 노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 순환기내과가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AMIR·총괄연구책임자 정명호)를 통해 400편의 논문을 게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14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순환기내과의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는 최근 ‘Scientific Reports’ 학회지에 ‘급성 심근경색증 후 박출률이 회복된 심부전 환자에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 억제제 중단 후 예후’에 관한 논문이 게재

다. 특히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는 우리나라 환자의 체질은 서양과 달리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는 서양보다 적고, 중성지방이 높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가 많아서 서양과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다만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낮더라도 초기에 스타틴 투여를 하면 임상결과를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미국 심장학회지에 게재했고 미국 가이드라인에도 인용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환자는 강력한 항혈소

판제 투여 후에 출혈 위험 증가되므로 서양 환자와는 달리 용량을 줄이거나 선택적으로 투여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이에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치료에 쓰이는 이중 항혈소판제 스코어(KAMIR-DAPT score)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유럽심장학회지에 게재한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서양에서 개발돼 사용됐던 ‘GRACE score 및 DAPT Score’ 보다 생존 예측도가 우수하게 나타나 출혈 위험이 높은 동양인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교수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JAMA, Lancet, BMJ, JACC, Circulation, EHJ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의 연구성과는 전남대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향후 광주 R&D 특구에 설립 추진 중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 대한심장학회 50주년 기념 연구사업으로 시작된 KAMIR는 18년간 전국 40 여개의 대학병원에서 총 8만2500여명이 등록 중이며, 수준 높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전남대병원, 국립대병원 최초 디지털 도서관 구축

### 수만 종 전자저널·eBook 등 구비 본·분원 의료진 손쉽게 정보 검색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사진) 의학도서관이 국립대병원 최초로 디지털 도서관(cnuh.futurenuri.co.kr)을 구축했다.

14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의학도서관은 두 달간 홈페이지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후 지난 1일부터 디지털 도서관을 정식 오픈했다.

이로 인해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의학도서관 중 최초의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해 선진 의학도서관의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전남대학교 도서관을 경유하지 않은 신속한 서비스와 독자적인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 본·분원 의료진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의학도서관에는 전자도서관시스템(ILUS Cloud Service)과 학술자원 통합검색 솔루션(EBSCO Discovery Service)을 신규 구축해 본원과 분원의 의료진들이 방대한 자료를 손쉽게 검색해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또 총 6만4574종의 전자저널이 탑재돼 있으며, eBook 1만213여종(의학 9512, 교양 701), Web DB 8종, 단행본 3255여종 등이 있다.

특히 전남대병원 의학도서관은 지난

2019년 2월까지 전남대학교 의학도서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다 독자적인 운영을 시작한 후 의료진의 교육·연구·진료를 위한 자체 전자도서관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전남대병원 교육수련실(실장 주재균·대장항문외과 교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립대병원 최초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게 됐다.

주재균 교육수련실장은 “손쉽게 논문을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플랫폼이 구축된 만큼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는 임상외과사과학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병원의 eSMART 시스템 전환에 따라 선진 의학도서관 시스템을 확보해 병원 수련환경 평가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들의 연구성과와 학습증대에 도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최신형 MRI 장비 추가 도입

### 마그네톰 비다 3T MRI 운영 10배 빠르게 고해상도 촬영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경중)은 최근 본관 1층 영상의학과에 최신형 MRI 장비(MAGNETOM Vida 3T)를 추가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4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마그네톰 비다 3T는 Compressed Sensing Cardiac Cine를 통해 자유 호흡방식의 고해상도 심장 MRI 촬영이 가능하며, 영상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MR Cardiac Cine 영상 촬영을 최대 10배까지 빠르게 수행한다.

또한 환자의 고유한 생체 시그널을 자동으로 감지해, MRI 검사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환자 케이스를 상황에 맞게 검사할 수 있으며, 재 스캔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검사 일정 운영 관리와 첨단 임상 영상 촬영 및 임상 연구에서 일관성 있는 고품질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 매트릭스 Select&GO는 시스템 전면의 터치식 인터페이스로, 원 터치 방식으로 여러 부위에서 신속하고 손쉽게 환자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 지능형 신체 모델이 검사 부위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본관 1층 영상의학과에 최신형 MRI 장비(MAGNETOM Vida 3T)를 추가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조선대병원 제공

번에 제대로 환자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김경중 병원장은 “최신형 MRI 도입으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고품질 검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조선대병원은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첨단 의료장비를 적극 도입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